● 아동학대예방의 시작은 관심과 신고입니다

● 신고전화 : 1577-1391, 129



COVER STORY 겨울에 심어두었던 마른나무에서 봄의 기운을 듬뿍 받은 새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꽃을 피우기 위해 나비들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봄의 기운이 듬뿍 느껴지고, 꽃과 나비가 어우러지는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행처 _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발행인** _ 류경희 **발행일** _ 2009년 4월 **편집인** _ 서태원 최주희 **디자인** _ OPEN communications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81-46 **Tel.** 02-558-1391 **Fax.** 02-558-1339 **www.korea1391.org**

굿네이버스

2009년 4월 (통권 12호)

아띠



1391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 컬투를 만나다!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 컬투(김태균, 정찬우)

개그맨 그룹 컬투는 2008년 11월,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컬투는 '2008,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대회' 참석을 시작으로 2009년 3월 '아동학대예방 홍보동영상'에 출연하였으며, 앞으로 '아동학대예방 포스터' 출연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오후 2시면 어김없이 라디오 DJ가 되어 온 국민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대한민국 대표 개그맨 그룹 컬투 !
따스한 봄 햇살이 반가운 날,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한 그들을 만났다.

Q : 요즘 근황은 어떠신가요 ?

정찬우, 김태균 :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 와 전국투어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싱글앨범 '봄(Spring)'을 발표하여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이 저희 노래를 통해 조금이나마 힘을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발표했습니다.

Q : 가족소개 부탁드려요.

정찬우 : 저는 아이가 둘 있습니다. 11살 아들과 8살 딸. 벌써 초등학생 학부모예요. 딸도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아무래도 남자여서 그런가, 아들이랑 더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김태균 : 저는 4살 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을 보면 어릴 적 제 사진 속 모습이랑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아마 보시면 제 아들이다 하실 거예요.

Q :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본인만의 양육방식이나 철학이 있으신가요?

정찬우 : 전 아이들이 자유롭게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도록, 독립심과 책임감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문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성을 제대로 갖춘 아이들로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김태균 :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참 컸어요. 그래서인지 결혼하면서 아버지의 존재,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고요. 최대한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고, 아들이 커가면서 '아빠 엄마가 날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저와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Q : 김태균씨는 얼마 전 '태교가 즐겁다.' 라는 책을 발간하셨는데, 어떤 책인지 설명해주세요.

김태균 : 임신과 출산, 가장 소중한 시기에 임신한 아내가 혼자서 고생한다는 생각보다는 나도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 매일 태교일기를 썼어요. 그 태교일기를 바탕으로 나온 책인데요. 임신기간에 예비부모가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와 좋은 태교방법, 꼭 알아야할 의학적 지식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Q : 아동학대예방사업에 참여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정찬우, 김태균 : 2008년 하반기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에 대한 제의가 들어왔어요. 저희 둘 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부모로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자는 생각에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Q :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로서 앞으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찬우, 김태균 : 거창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방송인이다 보니, 방송에서 좋은 부모, 좋은 아빠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으로서 모범이 되는 것이 아동학대예방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Q : 작년 겨울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을 만나셨는데, 어떤 만남이었나요?

정찬우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대회에 초청 받아 상담원들이 마음껏 웃으면서 아동학대예방업무로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 수 있도록 1시간 정도 공연을 했어요. 공연하는 동안 상담원분들이 참 밝고 적극적인 분들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기에 힘든 아동학대예방 업무도 하실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Q : 끝으로, 아동학대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정찬우, 김태균 : 아동학대예방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우선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신다면 언젠가 아동학대가 줄어들고, 우리나라가 더욱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교가 즐겁다'는 일상 속에서 임신한 부부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에피소드와 임신 가정에 필요한 의학지식 및 생활지침 등이 쉽고 재밌게 정리되어 있다〉

아동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
– 우리사회의 자신감을 위하여..

학대피해아동들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가해자들과 씨름하고 싸우고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존재에 감사했다. 대체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소리 높여 외쳐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은 언론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보유한 것은 우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김형민 PD (SBS 「긴급출동SOS24」)

김형민 PD는 SBS「긴급출동SOS24」제작팀 소속으로 2003년부터 학대피해아동의 실상과 그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한 아동학대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목도 기억에 남아 있지 않으나 강렬하게 뇌리에 남아 있는 영화가 있다. 그러나 그 강렬함은 영화의 주제의식과는 동떨어진 곁가지 장면에서 비롯된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 중국인 게임 프로그래머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린다. 재판을 받을 때 검사는 아버지가 아이를 키울만한 소양이 부족하다면서 아버지가 만드는 게임의 잔인한 내용을 근거로 든다. "어느 사악한 원숭이가 인간을 때려서 죽이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스토리라고 했다. 아버지는 검사에게 절규한다. "네가 서유기를 알아?" 아버지가 제작하는 게임의 소재는 다름 아닌 서유기였던 것이다.(?!)

동양문화에 대해 전혀 무지한 검사의 논고에 따라 아들과 아버지의 격리가 결정되는 모습에 혀를 차며 분개하는 한편, 나는 다소는 터무니없는 부러움에 휩싸여 있었다.

"저 정도만 갖고도 사회적인 개입이 가능하구나."

무심코 혼잣말을 했을 때 옆에서 영화에 몰입해 있던 아내로부터 어이없다는 투의 핀잔이 날아왔다.

"사오정이야? 왜 뚱딴지같은 얘기를 해?"

나는 왜 사오정이 되었을까. 그것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몰이해를 비판하는 영화의 귀퉁이에서, 아이들은 자격 없는 부모를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회가 나서서 아이들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미국 사회의 자신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에서 아직은 그 자신감이 튼실히 뿌리내리지 못하였음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긴급출동 SOS 24〉라는 프로그램을 3년간 맡아 오면서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아동학대 사례와 맞닥뜨렸다. 기분 좋게 해결된 일도 있지만, 목구멍 어딘가에 달라붙은 가래침처럼 찝찝했던 경우도 적지 않고, 높디높은 벽 앞에서 접근할 방도를 찾아 헤매다가 끝내는 좌절해 버린 케이스도 엄청나게 많았다.

국민기초생활수급비 탈 때를 제외하면 아이를 온전히 팽개쳐 둔 채 술로, 도박으로, 게임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던 아버지도 그 친권만큼은 강력했다. 정체 모를 망상에 젖어버린 엄마와 방에 드러누워만 있는 아버지, 퀴퀴한 쓰레기 살림 위에서 그 머리칼 속에 이를 한 움큼 키우며 사는 자매도 끝내 우리는 밖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의 엉덩이를 수십 대씩 두들겨 팬 뒤, 다른 친구들로 하여금 "무엇을 잘못하여 맞았는지"를 발표시켜서 칭찬 스티커를 준 교사가 있었다. 이 문제로 교육청을 찾았을 때 교육청 관료는 이는 절대로 아동학대가 아니며 단지 체벌이 과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지휘 감독한다는 공무원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팥쥐 엄마가 콩쥐 괴롭히듯 아무 이유 없이 못살게 구는 행위"에 불과했던 것이다.

제도의 미비, 완고하기만 한 사회적 통념, 교육 관료의 머리에서조차 실종 상태에 빠진 개념과 저열한 인식들은 그렇게 뭉쳐지고 쌓아올려져 하나의 벽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가 만났던 아이들은 벽 저편에서 상처받고 방치된 채, 약간의 과장을 보탠다면 세상으로부터 차단된 채 사회에 대한 증오를 키워 나가는 괴물 같은 존재로 커 가고 있었다.

학대피해아동들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가해자들과 씨름하고 싸우고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존재에 감사했다. 대체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소리 높여 외쳐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것은 언론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보유한 것은 우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고통 받는 아이들을 둘러친 성벽의 험난함을 고발하고자 목청을 돋우는 것은 방송일 수 있지만, 우리가 치고 빠진 자리에서 그 단단한 벽에 구멍을 내고, 사다리를 놓아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었던 까닭이다.

아동학대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던 시절도 그리 먼 과거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깡깡 시골 촌로의 입에서도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어렵지 않게 들먹여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산은 그에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늘상 폭력을 휘두르는 알코올 중독 아버지부터 일반 시민, 심지어 가장 아동학대의 피해에 민감해야 할 경찰과 교사, 그리고 교육 관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는 아직도 아동학대에 둔감하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은 그래서 소중하며 또 여전히 아쉽다. 서유기를 폭력적인 원숭이의 연쇄살인의 기록으로 몰아붙이는 미국 검사의 무지는 분명 우스꽝스러웠다. 그러나 그 맹랑한 과잉보호조차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한 양보가 없고 부모라는 이름에 비하여도 꿀리지 않을 만큼의 훌륭한 아동보호시스템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우리에게도 그런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시스템이 하루바삐 확립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아동과관련된 일이라면 학교이든 병원이든 가정이든 냉철하게 개입하여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노라 정중히 명함을 건넬 수 있고, 그 권위에 사회 구성원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체계가 대한민국 시민 사회 내에 튼실히 뿌리 내리기를 또한 바란다. 비록 정말로 그렇게 되어 〈긴급출동 SOS 24〉의 아이템 목록에서 아동학대문제가 현저히 줄어드는 바람에 나 자신 심각한 곤란을 겪게 되더라도 말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소식

● 제 1차 슈퍼바이저 양성교육

2월 13일(금),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슈퍼바이저 총 52명을 대상으로 「제 1차 슈퍼바이저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슈퍼바이저 양성교육은 가톨릭대학교 정신과학교실 권용실 교수께서 "학대피해아동의 정신과적 진단 및 개입"이란 주제로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슈퍼바이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과 사례슈퍼비전을 제공하였다.



● 우정사업본부 쉼터보호아동 정서지원사업 Kick-off

3월 17일(화), 본 기관은 우정사업본부와 「2009. 쉼터보호아동 정서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우정사업본부는 쉼터보호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연간 일억원(100,000,000원)의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일상생활 및 교육 · 문화체험, 희망캠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쉼터보호아동의 학대피해후유증 감소와 전국 쉼터 운영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전국 쉼터보호아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우정사업본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보수교육

2월 23일(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총 67명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금번 보수교육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교육과 법무법인 충정허 용 변호사의 법률교육으로 구성하여 진행되었고, 교육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임상담원의 업무 효율성 향상과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례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09. 성학대 전문상담원 교육

3월 17일(화) ~ 20일(금), 서울 유스호스텔에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총 45명을 대상으로 「2009. 성학대 전문상담원 교육」을 개최하였다. 총 30시간으로 구성된 본 교육은 '아동성폭력 실태 및 상담원의 역할'에 대해서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조중신 소장이 강의해주셨고, '성학대 피해아동과의 조사적 면담'에 관해서는 해바라기아동센터 김태경 임상심리전문가가, '성폭력 가해자 이해 및 교정 · 치료 개입과정'에 대해서 한국여성상담센터 현혜순 소장이, 그리고 '성학대 비가해 부모교육'에 관해서는 상담센터 뺑과 영혼 김현수 소장이 강의해주셨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아동 성학대 사례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내 생애 최고의 순간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배진희 상담원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배진희 라고 합니다.

처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넘치는 열정으로 어떤 것도 해주고 싶다고 의욕만 앞선 적도 있었지만, 나 자신 상담원으로서의 자질은 갖추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제도적 문제, 가부장적인 지역적 특성 등의 문제 등으로 과연 앞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 잘 해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만 5년이라는 시간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무엇보다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사람들의 심리, 법률, 사회적 제도에 대해 더욱 공부하고 실천력을 키워가야 된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작은 말 한마디와 행동은 내가 만나는 학대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고, 개입방향과 방법에 대해, 관장님과 여러 상담원들의 의견을 공유하여 가장 현명한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상담원으로써 한계에 부딪혀 힘들다고 느끼고, 밤늦게 전화가 와서 긴장한 적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되어 점점 변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길 잘했다'. 더욱더 고뇌하자' 라는 마음으로 노력해 가자고 결심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기도 하지만, 우리기관에서는 사례관리팀장이기도 합니다. '선배로서 나 이상의 후배를 육성하고, 그 후배가 여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실천하게 하자' 라는 마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아동보호전문기관 선배들을 통해 배워온 것처럼 말입니다.

학대행위자와의 갈등,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고리들, 유관기관과의 관계, 한 아동을 위해 밤새 잠을 이루지도 못할 정도로 고민한 적도 많았지만 생애 지금까지 동고동락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5년이 제 생애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많은 아이들과도 늘 최선을 다하여 생애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 가겠습니다. 아띠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To. 조민선 관장님



가슴에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조민선 관장님을 칭찬합니다.
예쁜 미소로 직원들을 맞아주시고, 작은 일에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지 않으시는 관장님! 명절마다 손수 써주시는 편지를 읽으며, 한 글자 한 글자에 새겨진 관장님의 사랑에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낍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에 깊이 감사할 줄 알고 아름다운 마음씨로 깊은 감동을 주시는 관장님! 관장님의 따뜻한 다독임이 훗날 저희 직원들의 성장에 밑거름이 될 거라 믿습니다. 관장님의 기대와 사랑에 부응하는 저희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관장님 사랑합니다~^^

From. 박송희 상담원

To. 한명애 팀장님



스마일 팀장님~^^ 팀장님은 힘든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저희들을 대해 주십니다. 질문에 응해주실 때도 상세하고 차분한 답변으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셔서 매번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한아이의 엄마가 되기 위해 꿋꿋이 노력하셨던 우리 멋진 팀장님께 박수를 보내드려요^^ 팀장님과 아기~ 은휴!!(ㅇ<' 앗!귀여워!)항상 건강하길 기도할께요!!

From. 연경희 상담원

To. 김유경 대리님



하얀 얼굴이 매력적인 김유경 대리님!~
제가 대리님 출산휴가 가셨던 기간에 임시해서 비록 함께 한 시간은 적었지만, 짧은 시간동안 언제나 저에게 자신감을 주시는 대리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따스하게! 때로는 카리스마 있게! 외유내강한 모습이 무척 멋지신 김유경 대리님! 앞으로 대리님을 본받아 첫 사회생활 활기차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친밀한 사이가 되어 보아요!

From. 김지우 상담원

To. 이성준 상담원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의 꽃보다남자, 로맨틱 구준표.
인자한 웃음으로 해피바이러스를 뿌리고 큰언니 같은 배려심으로 센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답니다.
기관의 청일점으로써 모든 일에 앞장서고 썰렁한 농담이지만 웃음으로 분위기를 바꿔놓을 줄 아는 진정한 분위기 메이커!! 미소천사 이성준 선생님입니다. ^^

From. 구은경 상담원

To. 구은경 상담원



우리 기관에서 젤 예쁜 구은경 선생님~!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 연약한 몸으로 잘 해 나갈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어느덧 사무실 최고참이 되어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네요.
선생님은 아이들을 아이답게 변화시키는 좋은 능력을 가졌어요. 학대로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들이 선생님 손길이 닿으면 금세 순하고 좋은 눈으로 웃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예쁜 얼굴보다 더 예쁜 마음을 가진 선생님!! 2009년에도 핫팅이에요!!

From. 한명애 팀장

To. 신난이 상담원



신나는 아이, 신난이^^
매사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난이 샘.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움도 많을 텐데 늘 웃으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금의 열정으로 힘든 일도 척척해나가는 난이 샘의 활약 기대 합게요.

From. 배보배 상담원

To. 연경희 상담원



작년 6월에 저희 기관에 발령 받아 아직은 많이 서툴고 업무가 익숙치 않을텐데도...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언제나 주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밝은 직원입니다. 신참이 아닌데도 언제나 신입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상담원에 대한 누구보다도 빛나는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바쁜 업무에 힘들텐데도 내색 한 번 비치지 않는 무엇보다 마음이 넓은 상담원입니다.

From. 김유경 대리

To. 김지우 상담원



팡팡 터트려주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로 오늘 하루도 에너지를 샘솟게 하네요.
새로운 일에 힘든 일도 많을텐데 열심히 하고 있을 선생님 모습에 걱정은 하지 않아요.
도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법! 언제 어디서나 지금의 열정과 꿈이 함께 하길 바래요.

From. 신난이 상담원

To. 박송희 상담원



사무실의 어두움을 제일 먼저 밝혀주는 부지런한 송희 선생님. 집이 가장 멀어도 1시간이나 일찍 출근하여 업무에 임하는 송희 선생님은 기관의 반닷불입니다. 몸매도 가냘프고 얼굴도 계란형인 현모양처감인 이쁜 송희샘. 항상 어디서든지 밝은 등불이 되는 송희 선생님. 언제나 행복하세요.

From. 이성준 상담원

To. 배보배 상담원



넉넉한 마음으로 정을 나누는 사람인 것 같다. 보배샘의 아이들은 샘을 너무나도 좋아한다. 마음의 빗장을 여는 따뜻한 광선이 숨겨있는 것 같다. 지친오후, 보배샘의 고혹적인 얼굴을 마주하며 눈인사를 하는 순간, 바쁜 업무에 잠시 숨을 고르고 웃게 된다는! 그리하여 배보배샘은 직원들에게 엔도르핀을 주는 우리기관의 큰 자산!

From. 장진숙 심리치료사

To. 장진숙 심리치료사



언제나 웃는 얼굴이 예쁜 장진숙 심리치료사...
함께 있으면 언제나 즐거워지는 마법을 지니고 있고, 뭐든지 맛있게 먹는 복스러움과 새침떼기 같은 모습 속에서 넘쳐나는 유머와 호탕함이 매력적이에요.
언제나 친절하고 상냥해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도 인기만점이랍니다.
장진숙 선생님이 올해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길 바라고, 그 안에서 멋진 모습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From. 관장 조민선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소식

서울 · 인천권역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이기영)

3월 17일(화), 삼성의료원, 해바라기아동센터, 강남정신보건센터 등 25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내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의 효율적인 개입과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복지유관기관 간담회'를 본 기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박동일)

2월 13일(금), 우리는은평(원장 황홍석)와 학대피해아동 및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의료지원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은평구, 강북구, 종로구내 위기에 처한 학대피해아동 및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안과 진료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안소영)

2월 23일월 ~ 27일(금) 까지 도봉구에 위치한 쌍문역에서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학대피해아동 사진 전시를 통해 어린이 지킴이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아동학대 신고번호인 "1577-1391" 및 "123"를 홍보하였다.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홍현정)

3월새봄을 맞이하여 언어치료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법인의 지원으로 실시되는 언어치료지원사업은 학대피해아동 중 언어발달과 표현에 문제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유도함을 목적으로하고 있다.

경기권역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장희정)

3월 6일(금), 수원시 지원으로 학대피해아동의 멘토이자 친구가 되어줄 아동보호수호천사 발대식이 진행되었다. 아동보호수호천사 프로그램은 대학생으로 구성 된 멘토들이 학대피해아동에게 정서적인 지지와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체험활동을 제공하도록 도우며, 가정방문을 통한 모니터링을 통해 재학대를 예방하고자 기획되었다.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신은혜)

2월 19일(목),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경기도 제2청사 함께 의정부역 광장에서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증진 및 관심유도로 아동학대신고 및 예방에 시민사회의 참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경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박규창)

2월 27일(금), 도농역 내부 및 광장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기관의 업무및 역할 등 아동학대예방의 사업의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적극적인 아동권리 보호 또는 부모효육에 관한 기본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방증진활동을 실시하였다.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정미)

3월 2일(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층 교육장에서 경기권역 사례수퍼비전을 실시하였다. 수퍼비전은 문제성향을 갖는 아동들의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올바로 알아 학대행위자 상담시 상담원들의 부모교육 기술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경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경선)

2월 17일(화), 홈플러스 병점점에서 "노란리본달기"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아이코리아가 후원한 이 캠페인에서는 아동학대 사진전을 통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한 예방을 위해 백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다.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정선미)

1월 10일(토), 부천에 위치한 양지요리학원에서 서울산업대학교 자원봉사동아리 수호천사단과 쉼터보호아동들이 함께하는 3차 미니 케이크 만들기를 실시하였다. 이번 활동을 통해 아동의 멘토쉽 증진및 케이크 만들기 과정을 참여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강원권역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최기원)

2월 17일(화) ~ 19일(목), 엘리시안 강촌리조트에서 아동권리캠프를 진행하였다. 본 행사는 공동모금회와 삼성사회봉사단의 후원으로 어린이 재단에서 아동권리캠프를 주최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들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아동권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강원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서은숙)

2월 24일(화), 본 기관 교육실에서 율곡병원 신경정신과 의료진들과 함께 '의료진사례회의'를 실시하였다. 의료진사례회의는 의료진 및 외부 전문기와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상담원의 사례관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시각에서 사례 접근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월 1회 진행되고 있다.



강원원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조수연)

3월 2일 월 ~6일(금), 원주건강문화센터에서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서명운동과 아동학대사진전 등이열려 시민에게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렸다.



충청권역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오현주)

1월 13일화), 한화봉사단과 함께 아동지킴이협약식 및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협약식을 통해 2009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학대피해아동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신범수)

2월 12일(목), 충청남도 교육연수원원장 김종길에서 충남 초등 신규임용 예정교사 437명, 2월 17일화에 충남 중등 신규임용 예정교사 256명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자교육 및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이혜선

본 기관은 청주시 교육청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학교에서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에게 심리치료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행복한 사랑의 울타리만들기'를 진행하게 되었다.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정국명)

3월 4일 (수),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보은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보은군청에서 간담회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영남권역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조윤영)

부산대학교와 협약을 맺어 "학대피해아동의 정서적 지지 및 역량강화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Hi Hyowon(하이효원)"을 실시한다. 멘토는 부산대학교로부터 부산대특수교육,심리,사회복지아동가족,유아교육학과 학생들을 추천받아 30명으로 구성되었다. 3월 14일(토), 첫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멘티들을 위해 교과목 기초학습 외에 정서안정을 위한 상담을 받았다.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조성철)

1월 5일(월)~16일(금), 다솜 일시보호 아동 8명에게 현장체험 오감체험, 집단놀이치료 등의 정서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학대피해아동이 정서적인 지지 및 올바른 생활방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경북안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이기준)

3월 5일(목), 경북북부지역 6개 시군에 설치된 아동안전지킴이 집을 모니터링 할 아동안전지킴이 총 10명을 대상으로 아동안전지킴이 교육을 실시했다. 지킴이의 역할과 활동방법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한해 동안 아동들의 행복한 통학길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미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권영미)

2월 24일(화), 김천지역의 아동양육시설인 베다니성화원, 일마누엘영육아원, 사랑의 집과 아동 · 청소년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구미지역 아동양육시설과도 곧 협약을 맺을 예정이며 협약식을 통해 구미 · 김천지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호남권역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경옥)

3월 9일 (월), 완산소방서에서 소방구급대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3일에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교사 1,400여명, 16일에는 덕진소방서 소방구급대원 60여명을 교육하였다.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이수정)

2월 10일(화), 3월 5일(목), (주)인터파크와 남원의료원 보건회로부터 학대피해아동 지원금 및 생필품을 지원받아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조손가정 학대피해아동 3가정에 장학금 및 물품을 전달하였다.

전남목포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수경)

3월 5일(목), 목포미즈이병원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 교육을 진행하였다. 학대피해아동들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개입이 가능하도록 아동학대의 징후 및 후유증 발생시 대처방법 등을 교육했으며, 아동학대신고전화를 홍보하였다.

제주권역

서귀포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은영)

2월 17일(화), 지역 내 문화 및 예 · 체능 체험소외계층인 학대피해아동과 저소득가정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이성장 예 · 체능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롯데호텔제주의 후원으로 진행한 본 행사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아이스링크장을 체험하면서 심신이 회복되고 자존감이 향상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